

서울대·고려대 의대 수시 경쟁률 ↓

각각 지원자 240명, 508명 줄어
올해 의대 모집정원 축소 영향에
상위권 학생 상향보다 안정 지원
지난해 의대 대거합격에 재수생 ↓

서울대와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의대를 비롯한 주요 학과의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여파와 올해 정원 축소가 맞물리며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대학가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10일 서울대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은 8.12대 1로, 전년도 9.07대 1보다 하락했다. 수시 지원자 수 역시 전년 대비 1890명 감소한 1만 7986명으로, 9.5% 줄었다.

의대는 충격이 더 컸다. 서울대 의대 수시 경쟁률은 10.92대 1로, 지난해 13.56대 1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원자 수 역시 240명(18.6%) 줄어 1052명에 그쳤다. 이는 전국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12.66대 1) 1215명보

다도 낮은 수치로, 당시보다 지원자가 167명(13.7%) 적었다.

학과별로는 인문계 일반전형에서 사회학과(16.50대 1), 사회복지학과(15.57대 1), 철학과(15.56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자연계 일반전형에서는 응용생물화학부(19.27대 1),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18.31대 1), 생물교육과(14.86대 1) 등이 지원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703명 모집에 5만5009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20.3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30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의대 경쟁률은 크게 떨어졌다. 고려대 의과대학의 경쟁률은 22.97대 1로, 전년도 30.55대 1에서 하락했다. 지원자 수도 1539명으로 전년도 2047명보다 508명(24.8%) 줄었으며, 2024학년도(1812명)와 비교해도 273명(15.1%) 감소했다.

반면 논술전형에서는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영학과 논술전형은 170.58대 1을 기록했는데, 수능 최저학

력기준이 전년 '4개 영역 등급 합 5'에서 올해 '합 8'로 완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철학과(87.75대 1), 자유전공학부(86.67대 1), 전기전자공학부(93.80대 1), 기계공학부(77.54대 1), 산업경영공학부(74.57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대와 고려대 사례에서 보듯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 수는 전반적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는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보다 안정 지원을 택한 점, 지난해 정원 확대 시 최상위권 내신 학생들이 대거 의대에 합격해 급년 재수생 풀(pool)이 줄어든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대폭 축소로 인해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대학별로는 의대 모집 확대 전인 2024학년도보다 지원자 수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출판·전시업계 등 입주 가능
청년통장 등 서류제출도 간소화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 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9월 11일 고시를 거쳐 즉시 적용된다.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런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해당 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확대

올해 43곳 추가… 내년엔 115곳으로

성남시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스마트 그린·안전 버스정류장 쉼터를 현재 45곳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15곳으로 대폭 늘린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폭한기와 혹서기에도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냉난방, 공기청정, 무선충전, 와이파이,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 제공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약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매년 설치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43곳을 추가해 총 88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상기후 심화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자,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청소업체 관계자가 성남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세척하며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

/성남시

시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해 확충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비 15억 원과 도비 12억 원을 투입해 27곳을 더 설치, 전체 규모를 115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혁신교육 성과 나누고 미래학교 방향 모색

내일 ‘서울혁신교육 포워드’ 열려
총 3부 15개 세션… 700여명 참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혁신교육 포워드(FORWARD) 2025’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혁신교육의 실천 성과를 돌아보고, 교육 대전환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 함께 훑아보는 혁신교육,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주제로 총 3부 15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교원, 교육전문직, 연구자, 학생, 학부모 등 약 700여 명이 참여해 현

장의 실천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1부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에서는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희망의 교육을 일궈가는 교사들을 응원하는 밴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서 ‘교사,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양성관 건국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협력교육’을 주제로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2부 ‘함께 훑아보는 혁신교육’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학생주도성 기반 교실과 학교 변화, 학생 돌봄, 디지털 전환과 수업 혁신, 학부모-교사 협력 등 8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오랜 기간 실천적 성과를 쌓아온 혁신

교육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교사연구자들의 논문 및 연구 결과 발표, 학교공동체를 위한 협력,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교육 활동, 다양성을 품는 다문화 시대 협력교육, 민주 시민교육 등 7개 세션이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서울혁신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학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미래를 향한 혁신교육의 비전과 교원, 학부모들의 실천 경험이 학교 혁신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경희학원, 세계평화의 날 기념 ‘PBF’ 열어

주제 ‘혼돈의 순간, 행성의식·미래정치’
오는 19일~20일 양일간 예정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은 오는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

e Politics)’다.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겹쳐 있는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다. ‘행성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의 PBF를 열고 있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안했다. IAUP는 이를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 해 11월 30일 제3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이후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정했다. 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확정됐으며, 냉전 완화와 인류 평화에 기여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반도체 분야 청년취업 기회 마련

오늘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

인천광역시와 지역 청년들에게 반도체 분야 취업 기회를 넓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12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를 열고 기업과 대학생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관은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반도체포럼,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았다.

참여 기업은 (유)스타즈칩팩코리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이피텍, ㈜에스에스피, 제너셈㈜, ㈜엠에스씨,

에스에스오트론㈜, ㈜이엠에스, ㈜칩스케이, ㈜미코세라믹스 등 10곳이다. 기업들은 설명회에서 회사 현황과 성장 전략을 알리고, 앞으로의 채용 계획과 필요 인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담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인사담당자와 1:1로 만나 직무별 역할과 근무 조건, 기업 문화, 복지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대학생들이 반도체 기업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얻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청년 인재와 지역 우수 기업을 연결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